Chung Buk Vision 2012

| 김 진 덕

2012 | 도정기획과제 – 01 |

충북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hung Buk Vision 2012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2012. 5.

충북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요약] ····· 6

1 문제제기 ····· 10

1.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 10
1.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 11

2 노동시장의 현황 ····· 14

2.1 세계적 현황 ····· 14
2.2 전국현황 ····· 15
2.3 충북지역 일반현황 ····· 16
2.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 18

3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 ····· 22

3.1 인력의 고학력화 ····· 22
3.2 청년층이 느끼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 24
3.3 저임금 · 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 ····· 25

4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 32

5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 36

5.1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 …… 36
5.2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 37
5.3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38
5.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 …… 39
5.5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 40
5.6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 등을 통한 정보제공 …… 42
5.7 청년취업통계DB 구축 …… 42
5.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 43
5.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 44
5.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 44

[참고문헌] …… 46

Contents | 표목차 |

〈표 1〉 기업규모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2011년 상반기) ····· 11
〈표 2〉 산업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2011년 상반기) ····· 11
〈표 3〉 최근 청년실업률(자)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자) 비교 ····· 16
〈표 4〉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 17
〈표 5〉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변화 추이 ····· 18
〈표 6〉 충북지역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수 ····· 19
〈표 7〉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직업(상위 5개 직업) ····· 20
〈표 8〉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 추이 ····· 22
〈표 9〉 주요 산업 취업계수 추이 ····· 24
〈표 10〉 공공행정 및 대기업 취업자의 청년층 규모 ····· 24
〈표 11〉 광업 및 제조업 비교현황 ····· 26
〈표 12〉 광업 및 제조업 1인당급여액(상위20개업종) 비교 ····· 26
〈표 13〉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급여액(상위20개 업종) 비교 ····· 28
〈표 14〉 충북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 현황(2009년) ····· 33
〈표 15〉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 현황 ····· 34
〈표 16〉 1인당 급여액 상위지역 간 비교 ····· 36

Contents | 그림목차 |

〈그림 1〉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 10
〈그림 2〉 미국경제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 ····· 14
〈그림 3〉 최근 청년층 고용률 ····· 15
〈그림 4〉 OECD 주요국 15~24세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2009년) ····· 16
〈그림 5〉 충북지역 청년층 직업별 취업자수 ····· 19
〈그림 6〉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산업 ····· 20
〈그림 7〉 지역별 진학자 비율 추이 ····· 23
〈그림 8〉 대학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 23
〈그림 9〉 청년층 구직단념 이유 ····· 25
〈그림 10〉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보유현황-학력수준별/전략산업별 ····· 29
〈그림 11〉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 32
〈그림 12〉 인력수급네트워크 구축(안) ····· 41

요약

□ **최근 충북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

○ 청년층 취업자수 : 2000년 14만2천명(21.4%) > 2011년 10만7천명(14.3%)

○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률 및 증가하는 실업률

- 2011년 청년층 고용률은 38.3%로 200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2011년 청년층 실업률은 6.2%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201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는 3.3%의 인력부족률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300인 미만 사업체 : 부족인원 8,333명, 3.7%의 부족률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로 가장 높은 부족률 기록

□ **충북지역 청년층 미스매치의 원인은 인력의 고학력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저임금·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임**

○ 2010년 현재 충북지역의 진학률은 85.7%로 2000년 72.3%보다 13.5% 상승

○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도 충북지역의 진학비율은 높은 수치

- 충북(85.7%) > 충남(85.1%) > 대전(80.2%) > 전국(79.0%)

○ 충북지역 청년층의 구직 단념 이유로 전공이나 경력,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을 지적

○ 충북지역 제조업의 1인당급여액은 2009년 기준 전국 평균과 약 2백여만원의 차이 발생

-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

○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과 전국 평균 급여액 상위 산업 간의 급여차이 존재

-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 9백만원, 20위 산업 간 차이는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고졸이하의 저학력 인력 비중이 가장 큼

▫ 이러한 청년층의 미스매치는 다양한 측면으로 파급되어 결국에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

○ 취업의욕 및 자신감 감소 등의 개인의 인적능력을 저하

○ 도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역외에서 구직하려는 인력 증가

- 전문대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 도내 56.2% > 도외 43.8%

- 대학교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 도내 36.3% > 도외 63.7%

○ 실업자수의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 초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의 재원 낭비 초래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 기반 붕괴 우려

▫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우 임금측면에서 비교적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음

-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업자체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

○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산업 이외의 고임금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 여겨짐

○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의 확보 필요

○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및 특성화 유도

-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 및 이전기관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칭)교육

과학정보통신융합대학원대학교’ 설립 고려

○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

-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 유치기업이 지역인재 신규채용 시 다양한 보조금 지급

○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및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

-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

○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및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 중·고등교육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에 지역의 고용시장 및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01

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01 문제제기

1.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 2011년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10만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74만6천명의 약 14.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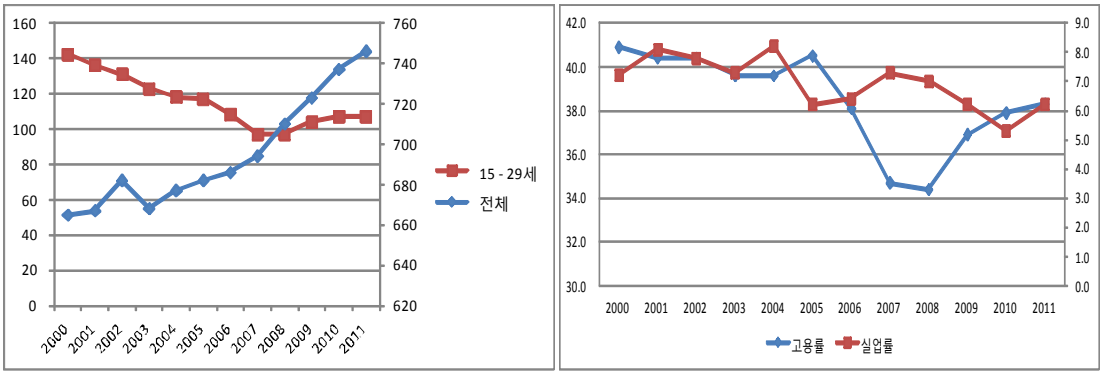
- 청년층 취업자수의 경우 2000년 14만2천명에서 2011년 10만7천명으로 3만5천명 감소하였으며, 비중면에서도 2000년 21.4%보다 7.1%p 감소한 14.3%를 기록함

○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률 및 증가하는 실업률

-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38.3%로 2000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충북지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1년 현재 6.2%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단위 : 명, %)



: ,

1.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측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201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는 3.3%의 인력 부족률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대기업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300인 미만 사업체 : 부족인원 8,333명, 3.7%의 부족률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로 가장 높은 부족률을 보임

〈표 1〉 기업규모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 인원(2011년 상반기)

(단위 : 명, %)

규 모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5인 이상 전체	259,313	21,745	16,769	4,976	8,847	3.3	9,726
300인 미만	219,456	18,289	13,171	5,118	8,333	3.7	9,102
5~ 9인	42,079	3,436	2,553	882	1,787	4.1	1,920
10~29인	64,647	5,556	4,122	1,434	2,446	3.6	2,616
30~99인	64,080	5,004	3,202	1,802	2,323	3.5	2,504
100~299인	48,650	4,294	3,294	1,000	1,777	3.5	2,062
300인 이상	39,857	3,456	3,598	-142	514	1.3	624

) = /
: ,

〈표 2〉 산업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 인원(2011년 상반기)

(단위 : 명, %)

산업분류	현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전산업(5인이상)	259,313	21,745	16,769	4,976	8,847	3.3	9,726
광 업	740	27	22	5	25	3.3	19
제 조 업	123,836	9,121	6,042	3,080	5,045	3.9	5,47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34,737	12,597	10,706	1,891	3,778	2.7	4,236

) = /
: ,

Chung Buk Vision 2012

02

1. 세계적 현황
2. 전국현황
3. 충북지역 일반현황
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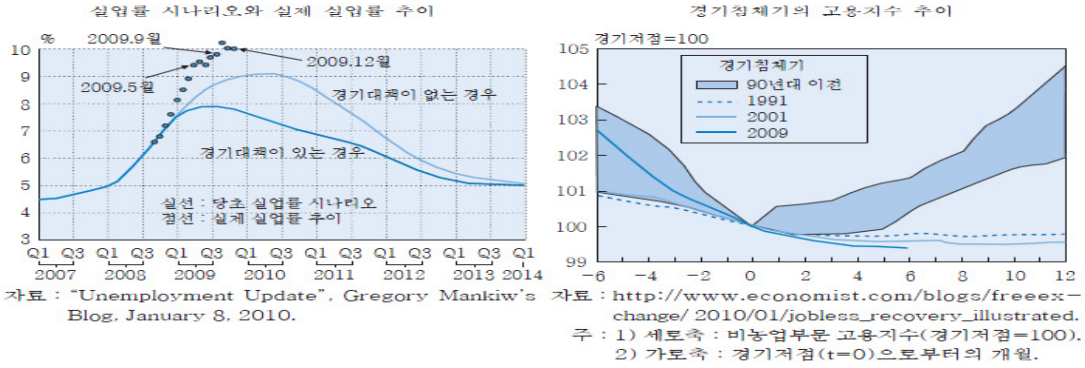
02 노동시장의 현황

2.1 세계적 현황

○ 최근 노동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미국경제의 경우에도 대규모 재정투입에 의한 고용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실업률 상승을 8% 이내로 억제하겠다던 오바마 경제팀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상황임 (산업연구원, 2010)

〈그림 2〉 미국경제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



자료 : "Unemployment Update", Gregory Mankiw's Blog, January 8, 2010.

자료 :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 2010/01/jobless_recovery_illustrated.

주 : 1) 세로축 :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경기저점=100).
2) 가로축 : 경기저점(t=0)으로부터의 개월.

: , , 2010

- 일본의 경우에도 총무성이 발표한 7~9월 노동력 조사 상세집계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적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완전실업자수는 277만명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의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1)]

2.2 전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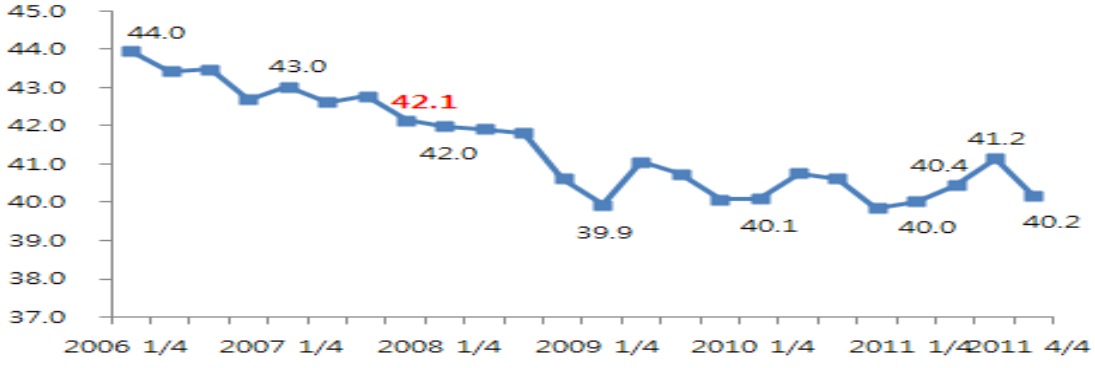
2.2.1

○ 2011년 4/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0.2%로 경기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4/4분기 42.1%)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청년층 수요의 감소가 아직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그림 3〉 최근 청년층 고용률

(단위 : %)



1) = (15~29) / (15~29)

: ,

○ 2010년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8.6%)은 청년실업률보다 2.7배 높은 23.0%로 청년층의 약 1/4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

- 즉 전반적인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취업애로층이 확대되고 있어 청년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임

1) 고용노동부, 해외노동동향, 2012.1.5
2)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2010

〈표 3〉 최근 청년실업률(자)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자) 비교

(단위 :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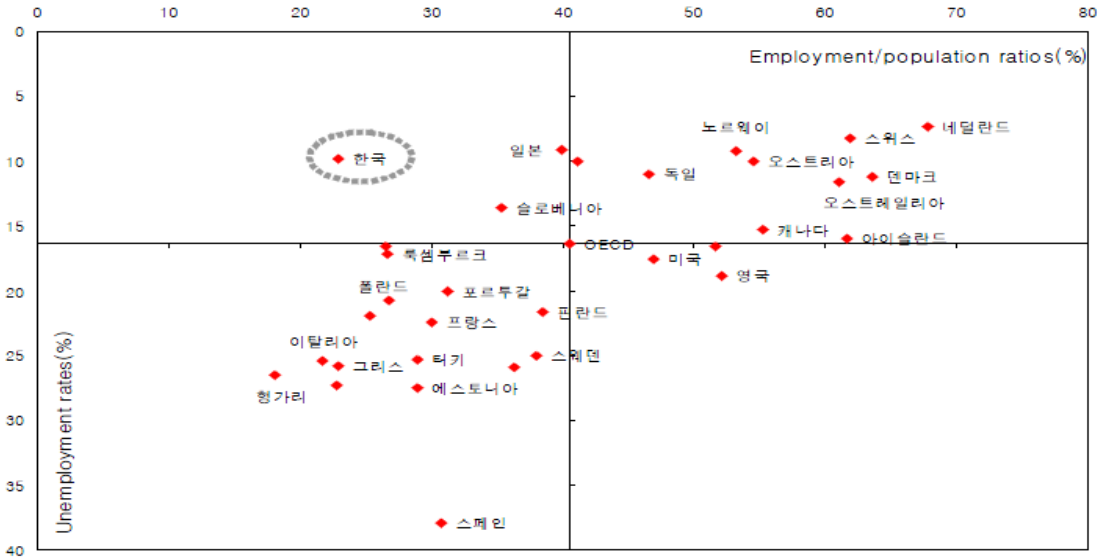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1~6월
청년실업률(청년실업자)	8.1 (34.7)	8.6 (37.0)
청년층 체감실업률(청년층 취업애로층)	22.9 (115.9)	23.0 (116.2)

1)
2) (+ + +
+) (+ + +
+)

: , , 2010

- 이를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볼 때 2009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저실업 저고용 국가로 분류되는 실정임

〈그림 4〉 OECD 주요국 15세~24세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2009년)



) Y OECD

: , , 2010

2.3 충북지역 일반현황

2.3.1

○ 대졸이상 학력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05년 대비 41.7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제활동 참여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현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현재 초졸 이하 12만4천명, 중졸 8만5천명, 고졸 30만6천명, 대졸이상은 24만8천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29세 인구는 05년 대비 -8.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05년(A)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B)	비교증감
교육정도별	계	698	701	710	726	739	753	764	9.46
	초졸 이하	141	138	140	132	128	124	124	-12.06
	중졸	93	90	85	90	85	85	85	-8.60
	고졸	289	287	291	299	301	306	306	5.88
	대졸이상	175	187	194	204	225	238	248	41.71
	전문대	59	67	70	67	70	76	89	50.85
	대학교	117	120	124	138	155	162	160	36.75
연령별	계	698	701	710	726	739	753	764	9.46
	15~19세	7	6	6	5	4	6	7	0.00
	20~29세	117	109	99	99	107	107	107	-8.55
	30~39세	174	173	175	179	175	175	168	-3.45
	40~49세	193	192	196	203	205	205	205	6.22
	50~59세	109	120	131	140	146	156	166	52.29
	60세이상	97	100	103	100	101	105	111	14.43

) = [(B-A)/A]×100%

: ,

2.3.2

○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비중은 2011년 현재 14.3%로 전국평균 16.0%보다 낮은 상황임

▪ 2011년 전국 청년층 취업자 비중(16.0%) > 충북 청년층 취업자 비중(14.3%)

- 또한 2000년 이후 주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29세의 취업자 수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1.9%) 보다 낮은 -2.2%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표 5〉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 국	합 계	21,156	100	24,244	100	1.2
	15~19세	389	1.9	227	0.9	-4.4
	20~29세	4,490	21.2	3,652	15.1	-1.9
	30~39세	6,137	29.0	5,786	23.9	-0.5
	40~49세	5,277	24.9	6,611	27.2	2.1
	50~59세	2,899	13.7	5,083	21.0	5.3
	60세 이상	1,963	9.3	2,886	11.9	3.6
충 북	합 계	665	100	746	100	1.1
	15~19세	12	1.8	7	0.9	-3.0
	20~29세	130	19.5	100	13.4	-2.2
	30~39세	174	26.2	164	22.0	-0.5
	40~49세	162	24.4	202	27.0	2.0
	50~59세	99	14.9	164	22.0	4.8
	60세 이상	88	13.2	110	14.7	2.1

) '00 '11

: ,

2.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2.4.1

○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사무관련직'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았음

- 2010년 기준으로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2,553명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2.5%), 도매 및 소매업(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 충북지역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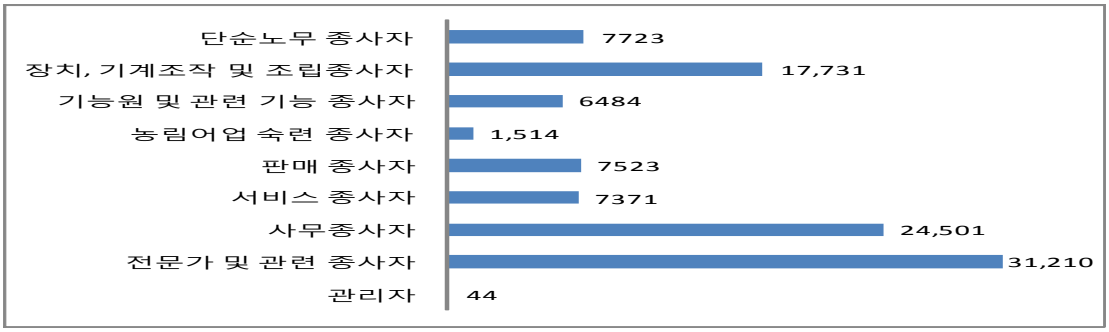
구분	인원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450	1.4
광업	374	0.4
제조업	32,553	3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7	0.1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0	0.2
건설업	2,725	2.6
도매 및 소매업	12,386	11.9
운수업	2,133	2.0
숙박 및 음식점업	7,630	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84	1.1
금융 및 보험업	4,271	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50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15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304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21	2.5
교육 서비스업	13,010	1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83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2	1.5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78	2.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13	0.4

: ,

- 2010년 충북지역 청년층의 직종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1,210명으로 가장 많았음
  - ▪ 다음으로 사무종사자(24,501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7,731명), 판매종사자(7,523명)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 충북지역 청년층 직업별 취업자수

(단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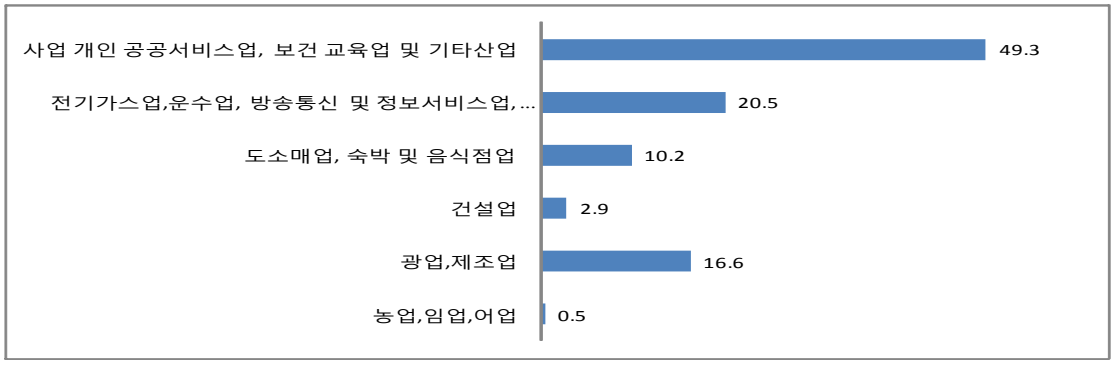
2.4.2

○ 충북지역 청년층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보건·교육업 및 기타산업', '사무관리직'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지역 청년층이 희망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보건·교육업 및 기타산업이 49.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20.5%, 광업, 제조업 16.6%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산업

(단위 : %)



: ,

- 충북지역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사무종사자로 24.5%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6%, 서비스종사자 19.8% 순으로 나타났음

〈표 7〉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직업(상위 5개 직업)

(단위 : 명, %)

희망직업	인원	비중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746	21.6
사무종사자	1,978	24.5
서비스종사자	1,596	19.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13	8.8
판매종사자	647	8.0

) 5

: ,

03

1. 인력의 고학력화
2. 청년층이 느끼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3. 저임금 · 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

03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

3.1 인력의 고학력화

○ 2010년 현재 충북지역의 진학률은 85.7%로 2000년 72.3%보다 13.5% 상승

- 전국 진학자 비율 : 2000년(68.0%) → 2010년(79.0%)
- 충북 진학자 비율 : 2000년(72.3%) → 2010년(85.7%)

〈표 8〉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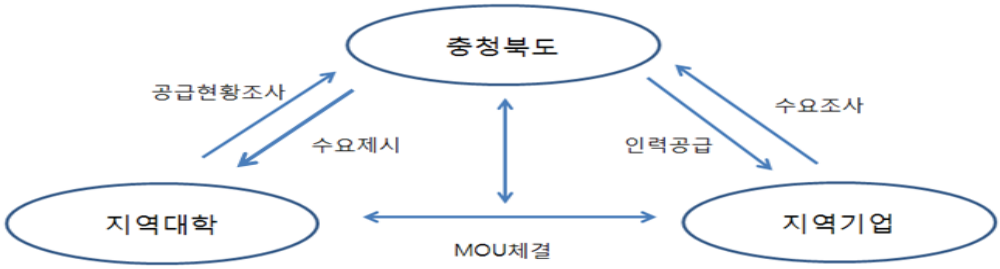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졸업자	764,712	569,272	633,539
	진학자	519,811	467,508	500,282
	비율	68.0	82.1	79.0
충북	졸업자	23,469	18,285	19,128
	진학자	16,970	15,447	16,400
	비율	72.3	84.5	85.7

1) 2010 +
: ,

○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도 충북지역의 진학비율은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충북(85.7%) > 충남(85.1%) > 대전(80.2%) > 전국(79.0%)

〈그림 12〉 인력수급네트워크 구축(안)



기관 간 공생발전업무 협약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4개 기관 공생발전업무협약 체결(11.12.07)

○ 협약내용

- 학력이 아닌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고졸 인력을 육성하며,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활동 확산에 협력한다.

- 또한, 보다 광범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미스매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예시 : '(가칭)청년 취업지원 지역사회협약' 체결

- 최근 구직자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적성이나 발전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임금이나 명성 등의 외재적 가치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임
  - ▪ 이같은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잦은 이직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는 미스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기업협의회 등 뿐만 아니라 일선 초·중·고등학교, 대학, 학부모, 전문가협회 등이 연계된 '(가칭)청년 취업지원 지역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기부터 미래 직업수요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심화되고 있는 미스매치를 완화 시켜야 할 것임

5.6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등을 통한 정보제공

-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사이트, 대중매체, 친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음
-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정보를 확인하였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중소기업백서'를 발간하여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일자리 의무등록제도'를 추진하여 일자리 발생시 DB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여 구인·구직자간 정보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시 : 일본 중소기업 백서(중소기업정책연구DB, 11.07.01)

○ 본 백서에서는 중소기업의 동향 및 현황 중요성 등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주요목차

- 제1부 최근 중소기업 동향
- 제2부 경제사회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 제3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중소기업

5.7 청년취업통계DB 구축

- 현재 고용 및 노동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확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관련 통계는 지역의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따라서 충북지역 자체적으로 고용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예시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서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용정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및 잡코리아, 사람인 등 민간기관 사이트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제공하는데 있어 그 범위가 커 충북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사이트 워크넷이 정보의 제약이 상당하고 질보다는 양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5)]
- 따라서 충북의 특성을 살린 구인·구직 및 창업, 인턴제, 채용설명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

예시 :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구인·구직 상담 및 연결, 전직지원, 토탈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정보 통합 전상망(인력은행) 운영
- 취업상담실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 일자리발굴 : 년 4회(기업 일자리 현황조사 및 발굴)
- 전직 서비스제공 : 퇴직자, 전직희망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 및 창업교육, 알짜기업 알리미, 기업 현장탐방투어, 채용설명회 등

5) 이튜데이, 박재완 '노동의 역설' 심각하다, 2011.05.27 내용 발췌

5.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 현재 도내에는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던 인력수급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로 수요와 공급차원 모두에서 우수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예시 : '희망이음 프로젝트'(충북테크노파크)

○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

○ 지자체·테크노파크가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

○ 사업내용

- 대학생 10,890명(100개 대학)과 604개 기업이 참가를 신청하여 최종 4,500여명의 대학생이 325개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기업분석을 실시함
- 충북지역실적 : 22개기업에 249명의 대학생이 참가
  → 실 수요자인 기업·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2012년에 참여대상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까지 확대실시

5.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 현재 청년층 인력 수급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자생력의 부족임
  - 이로 인하여 임금 및 고용환경 등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됨
  - 그리고 비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또한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하여 취업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고용시장의 현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체적으로 중·고등교육기관에는 일자리관련 전문컨설턴트 등을, 지역대학에는 학교 축제 시 지역기업CEO, 지자체관계자,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한 선배 등을 특강형식으로 지원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가치관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강의 지원도 필요함
- 또한, 현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등을 학교 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04), 노동경제용어 길라잡이
고용노동부(2010),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년도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 년도
고용노동부(2012), 해외노동동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 대학산학협력백서, 2009
대한상공회의소(2006), 중소기업 인력난 원인과 고용증대방안
반정호 외(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2011),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분석 및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2009), SOC 투자의 신조류, 스마트 SOC
삼성경제연구소(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2010),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삼성경제연구소(2010),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산업연구원(2010), 기업의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
이정섭(2011),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불일치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2005), 중소기업 인력유입방안에 관한 연구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DB(2011), 2011년 일본 중소기업 백서
지역발전위원회(2012), 2012년 지역발전 주요통계자료집
청와대(2011), 정책소식지, 2011.5.27
충북발전연구원(2011),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
충청북도(2011),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
충청북도(2011), 2011년 일자리창출계획
충청북도(2011), 혁신도시의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연구용역
충청북도(2012), 2012년 충북 산업진흥계획
충청북도(2011), 보도자료 -충청북도 고졸채용 및 교육기부 활성화에 적극 나서-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201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학생 취업욕구 조사분석

충북테크노파크(2010), 2009 충북 전략산업기술인력 수급현황 조사보고서
충북테크노파크(2011),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기수립된 인력양성 로드맵 실행방안 도출
통계청(2011),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http://www.isbb.go.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http://www.kbio.kr/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http://www.jbba.kr/

Chung Buk Vision 2012

연구진

•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도정기획과제 2012-01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발행인 | 정낙형
발행일 | 2012년 5월
발행처 | 충북발전연구원
전화 043-220-1107~8 전송 043-220-1199
360-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ISBN | 978-89-6455-070-0 933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Chung Buk Vision 2012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 (문화동 15)
자료문의 TEL : (043)220-1107~08 / FAX : (043)220-1199 / www.cri.re.kr

비매품
93320
9 788964 550700
ISBN 978-89-6455-070-0